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9)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虚妄)

콘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리된 법(法)이라도 주제적 각각의 활동이 없이는 지각될 수 없다. 지금, 아비다르마는, 특정한 지각 활동이 대상을 '집어들고', '주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꼭 거머쥐는데' 있다고 가르친다! 영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지각(perception)이라는 말은 per-CAP(머리, 덮어씌운다)에서 왔고, capio는 '잡는다', '붙든다', '꼭 잡아챈다'는 뜻이다. 역시 어떤 것을 '붙든다'는 것에는, 그 법(法)이든, 비법(非法)이든, 자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호' 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이해와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기(無我)가 어렵다.' No separate dharma can possibly be perceived without a subjective act of "perception" taking place. Now the Abhidharma teaches that the specific function of perception consists in 'taking up' an object, 'noting and recognizing' it, 'seizing upon' it. Similarly, in our own language, 'perception' comes from per-

CAP, and capio means 'to take hold of, seize, grasp'. But to seize on anything, either a dharma or a no-dharma, automatically involves an act of preference, bound up with self-interest, self-assertion, and self-aggrandizement, and therefore, unbecoming to the selfless. (Conze, The Diamond Sutra, p. 34) 세계는 자아의 중력에 의해 휘어져 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불교 이해의 관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욕구, 주장, 그리고 지배와 권력의 의지를 통해, 주변을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이 '주관적 환상(相)'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如如)' 객관적 '세계'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자기 관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주관적 편견과 물이해를 탈각한 '객관', 즉 '진정' 그러하게 있는 것(眞如)을 보여주고, 그를 향해 정진(精進)해 나아가도록 권합니다. 진정한 해방과 우주적 평화가 이 비점착의 투명한 시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자면, '있다'를 뜻하는 한자의 유(有)라는 말도, 그 어원은 '손이 벼단을 끌어 모아 쥐고 있는 모습'을 본뜨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수확과 소유! '이기적'임을 뜻하는 사(私)자도 '벼를 갈로 베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가 인간의 근원적 진실을 웅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물은 늘 우리의 사적 관심과 목적의 '자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경계는 블랙을 주변의 우주 공간처럼 늘

무지(無明)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우리는 이 과학적 사실(가)을 거의 모르고 삽니다. 나도 모르는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같은 불행의 연쇄고리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자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붓다만이 홀로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세계'를 부수고,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불행의 궁극적 기원은 탐욕과 분노라기보다, 그보다 더 깊고 있는

모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서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말했습디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나이디다." 붓다나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무지(아)말로 근원적 죄악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승려 나가세나는 메난드로스 왕에게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가우퉁

고 나서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삼계유신, 단법유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국,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너에게도 남이 있느냐, 있다면 남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한용운, <님의 침묵> 서문). 우리는 자신의 관심과 욕망을 투영한 대상을 두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며, 남들과 다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이 비좁고 불안전하고 낯은 세상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찾아 날아봅시다. '병 속의 새'를 꺼내는 요령은 알았으니, 실제 꺼내려면 얼만큼의 기술과 노력, 시간이 필요할까요. 멀다고 꿈꾸거릴 수도 있고, 문득 환한 창공을 나는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것을 점교(漸敎), 나중 것을 돈교(頓敎)라 합니다. '세계'를 만든 것도 '마음'이고,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혁명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는 것. <법구경>의 첫 머리를 정대 공양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들 따르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들 따르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있다'는 것은 곧 '소유한다'이다

'위어져 있습니다.' 심하면 마구 형틀어져 있기도 합니다. <금강경>이 그래서 말합니다. "凡所有相皆是虚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来!" 이 구절을 친절하게 제 멋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은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네 사적 의지와 관심의 투영, 다시 말해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사태를 선명히 자각할 때, 그때 너는 붓다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객관'은 그래서 멀고 먼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관심과 편견을 문득, 유보하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자세를 문득 갖추고 나면, 한 순간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붓다, 혹은 여래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그 '객관'을 가장 순수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지속적 으로 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즉 우리가 이 추종의 연쇄고리를 모른다는 '무지(無明)'에 있습니다. 탐욕도 분노도 그 무지의 결과입니다. <대승기신론>도 근본무명으로부터 탐욕과 분노가 파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명(無明)은 12연기의 시작이면서, 또 근원적 해악인 삼독의 뿌리입니다! 무명(無明)이라,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뭘 하고 사는지도 잘

하는 그리스이스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강 계 단 첫머리를 어느 사나이는 모르고 잡았고, 또 한 사람은 알고 잡았다고 할 때, 누가 더 많이 데웠습니까?" "존자여,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데웠지요." "대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원료가 무명 속에서 해골바가지물을 먹

주장사파라...

④2 지눌 스님의 '속빈 강정'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Key dialogue includes: '지눌은 십대소년 시절 도반의 소개로 한 여자를 알게 된 후 그리움으로 생명이 났다', '스님, 모든 게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떠났다', '권력과 재물...', '이런 게 있어야 따르실 수가 있겠',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3000배를 하면서 겨우 앓았다', '무슨 소박?', '그대의 의지력', '재물과 권력은 있는 동안 따르는 척 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재물과 권력도 없는데...', '다른 잠수부가 아저씨도', '스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간끼오', '스님도 밤새 그렇게 참선하셨나?', '하하', '스리가 굴러가지 않으면 소를 노두고 바퀴를 때리는', '몸을 괴롭히는 고행은', '행여 할 수 없는 이 기쁨', '내 생애 첫 번째 깨달음', '스님 저도', '부처님께서도 어리석다 하셨죠', '이거라는 거죠', '속빈 강정 같은 고행은 말라 이거죠', '한소식 하고 싶다 이거지', '그해 이걸 보아라', '이건 꼭 조단정',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참성품 이것이 바로...'

지눌 스님(1158-1210): 고려중기의 스님으로 지금의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폈다. '정혜결사문' '수심결' '진심직설' 등 저서를 남겼다.

네티즌 교리문답

돈오돈수·돈오점수의 뜻은?

Q '돈오돈수' 또는 '돈오점수'란 말을 들어 봤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것이지요? 순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 해수)

A1 : 돈오 이후 돈수면 어떻게 점수면 어떻게 하냐. 아무런 시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돈오는 단박에 깨달아 드는 것을 말함이나 단박에 깨달은 사람이 무얼 더 뒤를 것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돈수론입니다. 반면,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종생의 습기가 남아 있으니, 부단하게 정진하여 습기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점수론입니다. 그러나 돈오 이후 돈수와 점수를 나누는 것은 후학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참선자로서는 돈수와 점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박에 깨치고 나면 뒤를 것조차 없게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분별없는 정염의 세계이니 뒤를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닦는다는 생각마저 없는 것이 바로 돈오일진대, 무얼 닦아 몸에 배인 습기를 닦아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과 해가 돌이 아님을 알고, 부단하게 닦아가야 합니다. 그 행이 바로 돈수이고 점수라 말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돈점'에 의문을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자는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에 적응해 자연의 하나로서 자연과 일치해 내가 곧 자연이 돼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거슬리지 않으며 살아 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돈수와 점수인 것입니다. 내가 곧 자연이고 남과 다르지 않을 때 어찌 남이 이롭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의 일부로 정염하여 살아 갈 때 자연스럽게 자연에 회합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되니 이것이 이타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오하신 조사스님들께서는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의 일부가 돈수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풍각쟁이)
A2 : 풍각쟁이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돈오는 점수론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방편적 가르침이며, 점수는 돈오론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가르침입니다. 덧붙인다면 중도로서 길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매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상식퍼즐

1. 대구시와 경북 영천 등지에 걸쳐 있는 산. 풍화사가 있음 2. 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혈청 지질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혈청농도가 높은 상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3.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를 모으다 4. 돌이나 냇이 들린 집모양의 탑 5.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 마호메트교 6.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1. 불법을 지키는 8종(種)의 신, 천룡팔부(天龍八部)·용신팔부(龍神八部)라고도 함 7. 아이 낳는 고통 8. 열렬한 정신이나 격렬한 정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청년 9. 지각이 흔들리는 것 10. 6조 해능 스님의 선요(禪要)를 듣고 하룻밤에 증오(證悟)를 얻은 영가현각 스님이 대오의 심경에서 중도의 요지를 읊은 시 11. ○○○을 피다. ○○○도 밝으면 꿈틀 12.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한다는 뜻 13. 시조 시인 이백기의 호 14. 지혜의 우리말 15. 종교계의 졸업말.